

년까지 현 1천6백명의 저능아 수용인원을 2백50명으로 줄이기로 결정, 이에 따른 감원조치가 대두되고있어 이곳에 일하고 있는 교포들의 계속 취업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72년도 이곳에 수용된 저능아들의 부모들은 이병원 당국이 너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능아들을 다루고있다고 주장, 이 병원및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고소(Class Action Suit)를 연방법원에 제출 75년도에 승소함으로써, 이 병원은 연방법원으로부터 81년까지 현수용인원을 2백50명선으로 줄이도록 판결을 받았다.

동 병원은 이 판결에 동의, 75년부터 6천명에 달했던 수용인원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77년에는 수용자의 분산을 위해 UCP(United Cerebral Palsy) 그리고 Community Place Program 등 2가지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UCP 프로그램은 UCP 라 불린 사설 비영리단체가 조직되어 이 병원건물중 5동을 매입, 경영함으로써 보다 인간적 서비스를 저능아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V 코메디언 Jerry Lewis 씨가 이 프로그램의 회장을 맡고있다.

Community Place 프로그램은 수용인원을 주거지에 설립된 소규모의 수용병원으로 내보내는 것, 이번 1월중38명의 저능아들이 주택지에 위치한 병원으로 내보내졌다.

병원 규모를 줄이는 이 2개의 프로그램이 7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이곳에 고용된 교포들은 앞으로 타아울 실직문제에 커다란 신경을쓰고 있다.

현재 이 병원에서 46명의 간호원, 10명의 의사, 3명의 약사, 3명의 정신건강보조원, 3명의 간호감독관, 그리고 약 40명의 청소부등 총 1백5명의 교포들이 일하고 있다.

비록 병원당국은 뉴욕주내의 저능아 수용병원에서 온 고용광고를 돌려, 현직원이든 병원으로 전임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아시아계 특히 교포 고용인들에 대한 특별한 전임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 또한 현재 뉴욕시립병원등이 재정난으로 인해 대폭 감원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곳 교포들은 앞으로 취업전망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5년간 브록리번에서 빠르게 이곳을 출퇴근 하며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심운구옹(68)은 "이곳을 떠나게



부원장 스타인도프박사

되면 앞으로 어떻게 소일할지 답답하다"고 걱정하고있으며 또한 지난8년간 이곳에서 간호원으로 근무, 현재 간호감독관직을 맡고 있는 김모양은 "여러군데의 병원에 응모를 해봤으나, 별 전망이 없는것 같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타아울 감원조치에 우

모그램을 이 병원이 실시하고 있음을 상기, 한국인들은 여기에 적극참여 취업전망을 높이기를 바랬다.

지난해 7월 이곳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했던 이신애씨가 남치 살해되어 교포들에게 널리알려진 이 병원에는 한때 약 2백명의 교포가 근무한 적이 있었다.

2년전만해도 1백여명의 교포가 청소부로 이곳에서 취업, 이곳 청소업을 독점한적이 있으며 청소부중에는 전직 장성, 목사, 국회의원들도 끼어 있어서 교포사회에 많은 일화를 남긴 이병원의 기구축소는 연초부터 스타튼 아일랜드의 교포들을 서글프게 하고 있다.

THE HANKOOK ILBO (DAILY NEWSPAPER)

Published by: KOREA NEWS, INC.
Second Class Postage Paid at New York, N.Y.
and Washington, D.C.

NEW YORK

42-22, 27 St.
Long Island City, N.Y. 11101
(212) 784-4500